

『弘齋全書』의 인용문헌분석을 통한 정조의 독서 행태 연구

A Study on Jeongjo's Reading Behavior Based on the
Citation Analysis of *HongJaeJeonSeo*

김 효 진 (Kim, Hyo-Jin)*

리 상 용 (Lee, Sang-Yong)**

◁ 목 차 ▷

1. 서론	3. 正祖의 독서 행태
2. 『弘齋全書』인용문헌 분석	3.1 경부
2.1 인용문헌 조사	3.2 사부
2.2 인용문헌 분석	3.3 자부
2.2.1 국가별 분석	3.4 집부
2.2.2 주제별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초 록>

이 연구는 정조의 문집인 『弘齋全書』에 인용된 문헌을 국가별, 주제별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조의 독서행태를 살펴본 것이다. 군주이자 스승을 자처했던 정조는 유교경전을 중심으로한 성리학 서적에서 천문, 의학, 병술, 도가 등 제자백가서와 실용서에 이르는 전 주제분야의 서적을 폭넓게 섭렵하였다. 이 같은 그의 독서성향은 정통유학을 견지하면서,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보다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성향을 지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要語: 정조, 弘齋全書, 四部, 독서 행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rinby07@nate.com)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yly@ewha.ac.kr)

접수일: 2012년 12월 7일 최초심사일: 2012년 1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2년 12월 17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King Jeongjo's reading behavior based on the citation analysis of *Hongjaejeonseo*. King Jeongjo, who regarded himself both a Goonsa(君師, lord and teacher at the same time) and a teacher, mastered a wide range of books covering Neo-Confucian books which mainly include Confucian classics, books of the Hundred Schools of Thought (e.g. Buddhism, Taoism, Legalism, etc.) and practical books (e.g. Military Strategy, Medicine, Agriculture, etc.). His reading behavior was noteworthy as it suggested that he held on to authentic Confucianism, but he also showed a reformist tendency of poring over practical books to resolve realistic issues.

Key words: Jeong-jo, *HongJaeJeonSeo*, Sabu, reading behavior

1. 서론

18세기 조선은 사회·문화 전반에서 근대지향의식과 실용주의가 역동적으로 태동하여 발전해 나갔던 시기이다. 특히 정조(1776-1800)는 기존의 성리학적인데 의한 유교 사회에서 상공업 사회로 이행되는 조선 사회의 전환기로,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¹⁾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조는 六經을 기반으로 한 유학의 본원으로 돌아가고자 文風復古策을 실시하고 朱子書를 보급하였으며, 奎章閣을 설치하여 다양한 문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8세기 후반 조선의 문치주의가 꽃피게 되었다.

정조는 조선의 문예부흥기를 이끈 군주로, 스스로를 국가의 군주이자 스승인 君師라 칭하였다. 또한 抄啓文臣을 선발하여 직접 경전과 역사에 대해 강의하며 신하들을 교화하고 모범을 보였다. 정조는 “나는 어려서부터 언제나 반드시 일과를 정해 놓고 글을 읽었다. 병이 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일과를 채우지 못하면 그만두지 않았는데, 임금이 된 뒤로도 폐지한 적이 없다.”²⁾고 할 정도로 꾸준히 독서 생활을 하였으며, 탁월한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御定書 89종 2,490권, 命撰書 64종 1,501권³⁾에 달하는 서적의 편찬을 주관하기도 하였다.

정조는 뛰어난 학문적 소양을 갖춘 이상적인 통치자이자 최고의 학자로서, 文體反正을 실시한 보수성과 實用을 중시한 개혁성을 모두 갖고 있어 18세기 후반 지식인 중에서 특별한 사상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정조가 읽은 책이 어떤 계열, 어떤 성격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그가 세손으로 있던 1765년부터 사망하기까지 남긴 詩文과 語錄을 집대성한 거질의 문집 『弘齋

1) 정옥자,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서울: 돌베개, 1999), 17.

2) 박소동 역, 『(국역)弘齋全書 16: 卷161. 『日得錄1, 文學1』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 17. “予自幼少 每讀書必設程課 除非疾病 不盈課則不止也 及臨御後.”

3) 김문식, “정조의 교육정책,” 『정조학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19.

『全書』의 인용문헌을 분석하여 정조의 독서 행태를 도출함으로써, 정조 개인의 사상체계를 이해하고 당대의 시대적 배경이 미친 사상적 영향에 관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정조의 독서관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학문관 연구의 일부로써 독서의 목적과 독서의 방법, 독서의 습관 및 내용 등에 관한 것이다.⁴⁾ 이는 정조가 책을 대하는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것으로, 그의 문집에 수록된 인용문헌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조의 문집인 『弘齋全書』에 수록된 인용문헌을 추출하여 이를 국가별, 주제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정조의 독서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弘齋全書』 인용문헌 분석

여기에서는 국역 『弘齋全書』⁵⁾ 20책과 한국문집총간 DB(<http://db.itkc.or.kr/>)의 원문텍스트를 대상으로 『弘齋全書』의 인용문헌을 추출하였다. 『弘齋全書』에 나타난 인용문헌의 引用回數를 조사하여 핵심인용자료를 밝히고, 이를 국가별, 주제별 목록을 작성하여 정조가 인용한 자료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의 독서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4) 정옥자, “정조(正祖)의 학예사상 - 홍재전서 일독록 문학조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4집2호(1978). 2002-2037.

신양진, “朝鮮後期 正祖의 讀書觀,” 『역사와실학』 3집(1992), 119-184.

안병길, “正祖 御製條問의 經學觀: 『經史講義』, 大學條問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39집(2001), 395-424.

김인규, “홍재 정조의 학문관,” 『온지논총』 23집(2009), 293-320.

백민정, “정조의 학문관과 공부 방법론,” 『오늘의 동양사상』 34집(2010), 467-524.

5) 正祖 著, 임정기 外譯, 『弘齋全書』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8-2003).

2.1 인용문헌 조사

「弘齋全書」의 인용문헌은 1) 서명과 내용이 모두 기재된 경우, 2) 서명 없이 내용만 인용된 경우로 구분하여, 정조가 그 문헌의 구체적인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한 경우에만 인용으로 간주하였으며, 그 외에는 인용문헌에서 제외하였다. 이 원칙에 따라 인용된 문헌을 추출하고, 그 인용빈도를 조사하여 정조가 저술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핵심 인용문헌을 알아보았다. 인용문헌의 조사 대상은 국역 「弘齋全書」의 일러두기에 나와 있는 ‘書名 및 각주의 전거를 묶기 위해 사용된 부호인 쌍꺼쇠(《 》)로 표기⁶⁾된 모든 문헌’을 의미한다.

인용문헌의 빈도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弘齋全書」에서의 書名 기술 방법을 알아보았다.

첫째, 略稱과 異稱을 사용한 경우이다. 異稱을 사용한 예로는 「孟子」를 「鄒書」라 칭하거나, 「逸周書」를 「汲冢周書」라고 하여 異稱을 혼용한 경우가 있으며, 略稱을 사용한 예로는 「朱子語類」를 「語類」, 「朱子書節約」을 「節約」, 「朱子節約」으로, 「大明會典」을 「明會典」 또는 「會典」으로 칭한 경우 등이 있다. 「正義」, 「章句」, 「或問」처럼 略稱이 같은 서적이 나올 경우에는 본문에 저자에 대한 설명이 함께 나와 있거나, 문맥상 실제로 지칭하는 서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만 인용문헌으로 포함하였다.

둘째, 書名에 저자의 성을 붙여 기재한 경우이다. 「易林」과 「焦氏易林」, 「京氏易傳」과 「京房易傳」, 「京房易」 등이 그 예이다. ‘杜氏의 「通典」’, ‘馬氏의 「通考」’와 같이 저자의 성과 서명을 併記한 경우도 있었다.

셋째, 문헌에 포함된 편명을 書名 대신 사용한 경우이다. 「資治通鑑」의 「漢紀」, 「後漢書」의 「郡國志」, 「西域傳」을 원서명 대신 사용한 경우 등이 있었다.

인용빈도의 조사에 있어 하나의 문헌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용된 경우 모두 다 조사하였으며, 경전과 그 주석서의 경우 「규장각소장도서목록」⁷⁾과 「四庫全書

6) 김문식 역, 「(국역)弘齋全書1」 일러두기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8), 21.

7)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78-2003).

目錄」⁸⁾에 별개의 책으로 기재되어 있을 시에는 각 책의 引用回數를 별도로 집계하였다.

이상의 방식으로 추출된 인용문헌의 표제는 국역 『弘齋全書』의 색인과 『규장각소장도서목록』,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 등을 참조하여 대표 표제어로 정리하여 표제를 통일시키고 문헌의 인용빈도를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弘齋全書』에서 추출한 인용문헌의 인용빈도를 조사한 결과, 총 375종의 문헌이 4,502회 인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375종의 문헌을 대상으로 국가별, 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2.2 인용문헌 분석

여기에서는 『弘齋全書』에서 추출한 인용문헌을 국가별, 주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2.1 국가별 분석

『弘齋全書』에 인용된 문헌 375종 중 저자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책 2종(2회)⁹⁾을 제외한 373종의 문헌을 한국본과 중국본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국의 왕조별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 및 『규장각도서목록』과 OCLC의 종합 도서 목록인 WorldCat을 이용하였다.

2.2.1.1 한국본

여기서 말하는 한국본은 한국인 저작을 의미한다. 국가별 분석대상 373종 중 한국본은 신라시대 1종, 고려시대 1종, 조선시대 74종으로 총 76종의 서적이 인용

8) 『四庫全書總目提要』(臺北: 商務印書館, 1983).

9) 感遇集(1), 春官俎豆簿(1).

「弘齋全書」의 인용문헌분석을 통한 정조의 독서 행태 연구

되어 분석대상 문헌 373종의 20.38%를 차지하였다. 이들 76종의 서적은 총 254회 인용되었으며, 분석대상 引用回數 4,500회의 5.64%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용문헌의 20%에 달하는 국내 서적이 인용되었으나 실제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弘齋全書」에 인용된 한국본목록은 <표 1>과 같다.

<표 1> 「弘齋全書」에 인용된 韓國本目錄

王朝	書名(引用回數)	種數 (引用回數)
新羅	「道說秘記」(3)	1종 (3회)
高麗	「三國史記」(2)	1종 (2회)
朝鮮	「朝鮮王朝實錄」(50), 「國朝五禮儀」(41), 「朱子書節要」(12), 「魯陵志」(9), 「經國大典」(8), 「國朝寶鑑」(8), 「大典通編」(7), 「新增東國輿地勝覽」(7), 「武藝新譜」(6), 「詩樂和聲」(6), 「樂學軌範」(5), 「明義錄」(4), 「武藝諸譜」(4), 「續大典」(4), 「樂通」(4), 「西河集」(3), 「宋子大全」(3), 「高麗史」(2), 「國朝喪禮補編」(2), 「國朝人物考」(2), 「訥齋集」(2), 「東醫寶鑑」(2), 「漏籌通義」(2), 「礪溪階錄」(2), 「兵學指南」(2회), 「礪源系譜紀略」(2), 「聖學輯要」(2), 「顯隆園志」(2), 「講錄」(1), 「擊蒙要訣」(1), 「經書辨疑」(1), 「公私聞見錄」(1), 「果菴集」(1), 「光國志慶錄」(1), 「國朝榜目」(1), 「國朝五禮儀序例」(1), 「金石錄」(1), 「魯西遺稿」(1), 「農家集成」(1), 「唐宋八子百選」(1), 「大東野乘」(1), 「大典後續錄」(1), 「東史綱目」(1), 「栗谷全書」(1), 「明陪臣考」(1), 「夢窩星州遺教」(1), 「戊寅記聞」(1), 「丙子錄」(1), 「四書思辨錄」(1), 「穉經」(1), 「續兵將圖說」(1), 「松窩雜說」(1), 「時憲曆」(1), 「息庵遺稿」(1), 「於于集」(1), 「輿地圖書」(1), 「慵齋叢話」(1), 「月汀漫錄」(1), 「字恤典則」(1), 「楞湖階錄」(1), 「拙修齋集」(1), 「朱子書節要講錄刊補」(1), 「中庸九經衍義」(1), 「至德誌」(1), 「滄溪集」(1), 「闡義昭鑑」(1), 「春官通考」(1), 「耻齋日記」(1), 「耽羅誌」(1), 「筆苑雜記」(1), 「河西全集」(1), 「河氏家乘」(1), 「海東名臣錄」(1), 「海東名臣傳」(1)	74종 (249회)
76종(254회)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弘齋全書」에는 한국본이 76종(20.38%) 인용되었다. 신라시대 저작은 풍수지리서인 「道說秘記」가 3회 인용되었고, 고려 시대의

저작으로는 金富軾의 『三國史記』가 2회 인용되었다. 그 외 74종의 문헌은 모두 조선시대의 저작으로 249회 인용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조선시대 저작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저작의 인용현황을 살펴보면 1회만 인용된 서적은 『耽羅誌』, 『筆苑雜記』 등 전체 74종 중 46종으로 62.16%를 차지한다. 5회 이상 인용된 서적은 『朝鮮王朝實錄』, 『國朝五禮儀』 등 11종으로 14.86%에 불과하지만, 引用回數로 보면, 159회로 조선시대저작 총 引用回數 249회의 63.86%를 차지하여 이들이 핵심적인 인용문헌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서적을 주제별로 분석해 보면, 史部 서적이 36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子部 서적이 20종, 集部 17종, 經部 1종으로 나타났다. 引用回數로 분석하면 經部 1회, 史部 171회, 子部 55회, 集部 22회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조는 조선시대 저작 가운데 史部の 문헌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으며 활용도 역시 가장 높았다. 李滉의 『朱子書節要』, 李珥의 『聖學輯要』 등 조선시대 대학자의 저작도 7종이 19회 인용되었다. 또한 『宋子大全』, 『魯西遺稿』 등과 같은 문집도 15종이 20회 인용되었으며, 대부분 1회 인용에 그쳤다. 비록 활용도는 낮지만 정조가 당시 문인들의 문집을 읽고 이를 인용하였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정조 자신이 편찬을 주도한 서적들도 14종(43회) 인용하여, 이들 역시 핵심적인 인용문헌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2.2.1.2 중국본

여기에서 말하는 중국본은 중국인 저작을 뜻한다. 『弘齋全書』에는 중국본이 297종 인용되어 분석대상 373종 중 79.62%로 나타났으며, 이들 문헌은 총 4,246회 인용되어 분석대상 引用回數 4,500회 중에서 94.36%를 차지하여 그 중요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弘齋全書』에 인용된 中國 서적을 역대 왕조별로 나눈 결과는 <표 2>와 같다.

「弘齋全書」의 인용문헌분석을 통한 정조의 독서 행태 연구

<표 2> 중국본의 왕조별 분류

	先秦	秦	漢	魏晉 南北朝	隋	唐	宋	金	元	明	清	합계
種數	26	3	38	46	3	28	85	1	11	35	21	297
比率 (%)	8.75	1.01	12.80	15.49	1.01	9.43	28.62	0.34	3.70	11.78	7.07	100
引用 回數	1,965	16	483	173	3	107	1,251	1	98	82	67	4,246
比率 (%)	46.28	0.38	11.38	4.07	0.07	2.52	29.46	0.02	2.31	1.93	1.58	100

「弘齋全書」에 인용된 중국본 297종 중 가장 많은 종수를 차지한 것은 宋대의 문헌이었다. 이어 魏晉南北朝, 漢, 明의 순으로 나타났다. 引用回數로는 先秦時代, 宋, 漢, 魏晉南北朝의 순으로 나타났다. 先秦時代에 간행된 문헌은 종수는 많지 않지만 정조가 인용문헌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魏晉南北朝, 明의 저작은 인용한 문헌의 종수는 많으나 상대적으로 덜 인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본 297종을 각 왕조별로 나눈 목록은 <표 3>과 같다.

<표 3> 중국본의 왕조별 목록

王朝	書名(引用回數)	種數 (引用回數)
先秦	「詩經」(367), 「書經」(307), 「禮記」(181), 「周易」(176), 「論語」(166), 「孟子」(165), 「春秋左氏傳」(132), 「周禮」(128), 「中庸」(87), 「大學」(79), 「莊子」(39), 「春秋」(31), 「儀禮」(23), 「春秋公羊傳」(19), 「國語」(18), 「韓非子」(8), 「孝經」(7), 「管子」(6), 「春秋穀梁傳」(6), 「道德經」(5), 「列子」(5), 「荀子」(5), 「墨子」(2), 「握奇經」(1), 「六韜」(1), 「黃帝內經」(1)	26종 (1,965회)
秦	「呂氏春秋」(12), 「黃石公三略」(3), 「黃石公素書」(1)	3종 (16회)
漢	「史記」(196), 「漢書」(134), 「韓詩外傳」(17), 「新書」(13), 「說文解字」(12), 「楚辭」(10), 「說苑」(9), 「烈女傳」(9), 「孔叢子」(7), 「大戴禮記」(7), 「戰國策」(6), 「淮南子」(6), 「白虎通」(5), 「水經」(5), 「揚子法言」(5), 「列仙傳」(4), 「吳越春秋」(4), 「太玄經」(4), 「尚書大傳」(3), 「西京雜記」(3), 「易林」(3), 「東觀漢記」(2), 「釋名」(2), 「新序」(2), 「越絕書」(2), 「京氏易傳」(1), 「烈士傳」(1), 「論衡」(1), 「孟子注」(1), 「新語」(1), 「顏氏春秋」(1), 「易通卦驗」(1), 「鹽鐵論」(1), 「周髀算經」(1), 「周易乾鑿度」(1), 「中論」(1), 「風俗通」(1), 「漢武帝內傳」(1)	38종 (483회)

王朝	書名(引用回數)	種數 (引用回數)
魏晉 南北朝	『爾雅』(29), 『舊唐書』(28), 『三國志』(15), 『世說新語』(15), 『孔子家語』(13), 『逸周書』(5), 『文選』(4), 『四聲類譜』(4), 『山海經』(4), 『竹書紀年』(4), 『廣雅』(3), 『博物志』(3), 『宋書』(3), 『拾遺記』(3), 『魏書』(3), 『禽經』(2), 『妙法蓮華經』(2), 『水經註』(2), 『續齊諧記』(2), 『帝王世紀』(2), 『荆楚歲時記』(2), 『高士傳』(1), 『南齊書』(1), 『陀羅尼雜集』(1), 『大薩遮尼犍子所說經』(1), 『陶淵明集』(1), 『洛陽伽藍記』(1), 『論語集解』(1), 『穆天子傳』(1), 『文章緣起』(1), 『物理論』(1), 『佛說大報父母恩重經』(1), 『三齊略記』(1), 『世本』(1), 『搜神記』(1), 『神農本草經』(1), 『神仙列傳』(1), 『玉篇』(1), 『魏志』(1), 『長阿含經』(1), 『春秋左傳注疏』(1), 『春秋左傳集解』(1), 『春秋後語』(1), 『抱朴子』(1), 『華嚴經』(1), 『黃庭經』(1)	46종 (173회)
隋	『起世因本經』(1), 『西域圖記』(1), 『中說』(1)	3종 (3회)
唐	『晉書』(40), 『周禮註疏』(9), 『儀禮注疏』(6), 『隋書』(5), 『禮記註疏』(5), 『通典』(5), 『杜少陵詩集』(3), 『北史』(3), 『史記索隱』(3), 『尚書註疏』(3), 『陸宣公奏議』(3), 『開元天寶遺事』(2), 『經典釋文』(2), 『尚書正義』(2), 『幽怪錄』(2), 『貞觀政要』(2), 『括地志』(1), 『金剛經』(1), 『唐六典』(1), 『唐會要』(1), 『大唐開元禮』(1), 『宣室志』(1), 『孫可之集』(1), 『詩經註疏』(1), 『梁書』(1), 『異聞集』(1), 『李衛公問對』(1), 『化書』(1)	28종 (107회)
宋	『書集傳』(195), 『詩經集傳』(192), 『中庸章句』(117), 『論語集註』(90), 『朱子語類』(75), 『後漢書』(69), 『周易本義』(56), 『新唐書』(51), 『周易程傳』(45), 『孟子集註』(40), 『朱子大全』(33), 『資治通鑑綱目』(32), 『大學章句』(29), 『近思錄』(17), 『大學或問』(17), 『心經』(16), 『中庸或問』(16), 『資治通鑑』(14), 『小學』(12), 『二程全書』(10), 『通書』(10), 『朱子語錄』(7), 『論語或問』(6), 『皇極經世書』(6), 『少微通鑑節要』(5), 『古文真寶』(4), 『宋名臣言行錄』(4), 『五代史』(4), 『洪範皇極內篇』(4), 『東坡全集』(3), 『律呂新書』(3), 『易學啓蒙』(3), 『示兒編』(3), 『家禮』(2), 『廣韻』(2), 『論語正義』(2), 『東坡志林』(2), 『西銘解義』(2), 『詩序辨說』(2), 『新五代史』(2), 『禮記集說』(2), 『樂書』(2), 『字說』(2), 『冊府元龜』(2), 『紺珠集』(1), 『建炎以來系年要錄』(1), 『擊壤集』(1), 『郭氏傳家易說』(1), 『群書考索』(1), 『龜山集』(1), 『談苑』(1), 『唐史』(1), 『埤雅』(1), 『史記集解』(1), 『三國雜事』(1), 『三禮圖』(1), 『三朝實訓』(1), 『書經考異』(1), 『西臺集』(1), 『書言故事』(1), 『石林燕語』(1), 『涑水紀聞』(1), 『續資治通鑑長編』(1), 『續通典』(1), 『宋景文筆記』(1), 『詩緝』(1), 『楊龜山集』(1), 『燕北雜記』(1), 『吳越備史』(1), 『雲笈七籤』(1), 『雲麓漫抄』(1), 『爾雅翼』(1), 『紫薇師友雜誌』(1), 『資治通鑑外紀』(1), 『資治通鑑前編』(1), 『藏一話映』(1), 『周禮復古編』(1), 『知言』(1), 『滄浪詩話』(1), 『楚辭集註』(1), 『春秋後傳』(1), 『太平寰宇記』(1), 『通鑑綱目集覽』(1), 『火珠林』(1), 『孝經刊誤』(1)	85종 (1,251회)
金	『中州集』(1)	1종 (1회)

「弘齋全書」의 인용문헌분석을 통한 정조의 독서 행태 연구

王朝	書名(引用回數)	種數 (引用回數)
元	『宋史』(76), 『文獻通考』(6), 『十八史略』(6), 『遼史』(2), 『無冤錄』(2), 『書纂言』(1), 『授時曆』(1), 『定正洪範』(1), 『河洛本始』(1), 『河源志』(1), 『丸經』(1)	11종 (98회)
明	『四書蒙引』(9), 『唐宋八大家文抄』(8), 『紀效新書』(7), 『大明集禮』(6), 『律呂精義』(4), 『周易傳義大全』(4), 『大學衍義補』(3), 『本草綱目』(3), 『詩記』(3), 『永樂大典』(3), 『天機大要』(3), 『大明會典』(2), 『武備志』(2), 『性理大全』(2), 『葬經翼』(2), 『周易說統』(2), 『家禮儀節』(1), 『歸有園談麈』(1), 『大明一統志』(1), 『圖書編』(1), 『讀書錄』(1), 『文體明辨』(1), 『山堂肆考』(1), 『詩經世本古義』(1), 『心經附註』(1), 『元史』(1), 『律學新說』(1), 『正學雜著』(1), 『朝鮮記事』(1), 『地理人子須知』(1), 『天文略』(1), 『楚書』(1), 『稗海』(1), 『玄覽』(1), 『洪武正韻』(1)	35종 (82회)
淸	『律呂正義』(17), 『明史』(14), 『宋元學案』(12), 『四書講義困勉錄』(3), 『淵鑑類函』(3), 『儀象志』(2), 『日知錄』(2), 『古夫於亭雜錄』(1), 『讀史方輿紀要』(1), 『明詩綜』(1), 『文心雕龍輯注』(1), 『四庫全書總目提要』(1), 『三輔黃圖』(1), 『尙書廣聽錄』(1), 『書經傳說彙纂』(1), 『易說問答』(1), 『全唐詩話續編』(1), 『浙江採集遺書總錄』(1), 『朱子全書』(1), 『佩文韻府』(1), 『陔餘叢考』(1)	21종 (67회)
총 297종(4,246회)		

「弘齋全書」의 중국본 인용문헌들의 특징과 인용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弘齋全書」에 인용된 저작 중 가장 오래된 문헌인 先秦時代의 저작은 26종으로 총 1,965회 인용되었다. 중국본 297종 중에서 8.75%에 불과하지만, 중국본 전체의 引用回數 4,246회 중에서 46.28%를 차지할 정도로 인용률이 높았다. 이 중 주로 「詩經」, 「書經」 등 유교 경전이 100회 이상 인용되어 그 비율이 높지만, 「莊子」, 「管子」 등 제자백가들의 서적도 인용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둘째, 漢代의 문헌은 38종이 인용되어 중국본 297종 중 12.80%를 차지하였으며, 引用回數로는 483회 인용되어 중국본의 引用回數 4,246회 중 11.38%이다. 漢代의 서적 중 引用回數가 100회 이상인 서적은 「史記」와 「漢書」로 漢代에 편찬된 史書들이 핵심인용문헌으로 드러났다.

셋째, 魏晉南北朝代의 저작으로 「弘齋全書」에 인용된 문헌은 총 46종이며 引用回數는 173회이다. 이는 중국본 297종 중 15.49%, 引用回數 4,246회 중 4.07%를

차지한다. 인용문헌은 經部 문헌이 8종, 史部 문헌이 14종, 子部 문헌이 21종, 集部 문헌이 3종이었으며, 引用回數로 보면 經部 문헌이 41회, 史部 문헌이 68회, 子部 문헌이 58회, 集部 문헌이 6회로 나타났다. 따라서 魏晉南北朝대의 문헌 중에서 종수로는 子部 문헌이 많았으나, 인용빈도에 있어서는 史部の 문헌이 가장 많이 인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唐代의 문헌은 28종이 인용되어 중국본 297종 중 9.43%이며, 引用回數는 107회로 중국본 전체 引用回數 4,246회 중 2.52%의 비율을 점유하였다. 唐代의 저작 중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晉書」로 총 40회 인용되어 唐代 저작의 引用回數 중 37.38%를 차지하였다. 이들 저작을 주제별로 보면, 經部 7종, 史部 12종, 子部 7종, 集部 2종으로 나타나 史部 문헌의 종수가 가장 많았다. 引用回數로는 經部 28회, 史部 66회, 子部 9회, 集部 4회로 史部 문헌의 인용빈도가 가장 높았다. 唐代의 저작 중 「晉書」를 비롯한 史部 正史類 서적은 5종이 총 52회 인용되어 唐代 저작의 引用回數 중 48.60%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정조가 唐代에 편찬된 역사서를 주로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宋代의 문헌은 85종이 총 1,251회 인용되었다. 종수로는 국가별 분석대상 373종 중 22.79%를 차지하여 모든 시기의 저작 중에서 가장 많았으며, 중국본 297종 중에서는 28.62%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국본을 포함한 전체 引用回數로 보아도 4,500회 중 27.80%를 차지하고, 중국본의 引用回數 4,246회 중에서는 29.46%를 차지하여 인용문헌의 시기별 분석에서 先秦 문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引用回數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宋代 저작의 성격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經部 문헌이 28종, 史部 22종, 子部 27종, 集部 8종으로 나타나 經部 문헌의 종수가 가장 많았으며, 인용빈도로는 經部 830회, 史部 195회, 子部 213회, 集部 13회로 역시 經部 문헌의 인용빈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子部 儒家類 서적은 10종이 183회 인용되어 宋代 子部 문헌의 引用回數의 85.92%에 달한다. 이밖에도 宋代에 처음으로 등장한 편년체 사서인 「資治通鑑」을 필두로 史部 編年類 문헌도 9종이 57회 인용되어 이들 서적들이 정조에 의해 중요하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明代의 문헌은 35종의 문헌이 82회 인용되었는데, 이는 중국본 297종 중에서 11.78%를 차지하며, 중국본의 총 引用回數 중 1.93%를 점한다. 明代 저작의 성격을 살펴보면 經部 문헌이 8종, 史部 7종, 子部 16종, 集部 4종으로 子部 문헌의 종수가 가장 많았으며, 인용빈도로는 經部 23회, 史部 13회, 子部 33회, 集部 13회로 역시 子部 문헌의 인용빈도가 가장 높았다. 明代 저작 중 子部 문헌으로는 「大學衍義補」, 「讀書錄」을 비롯한 儒家類 서적 5종이 8회 인용되었으며, 「天機大要」, 「葬經翼」 등 術數類 문헌 3종이 6회, 「永樂大典」, 「圖書編」 등 類書類 문헌 3종도 5회 인용되었다. 「紀效新書」, 「武備志」와 같은 兵書도 2종이 9회에 걸쳐 인용되어 주요하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大明集禮」와 「大明律」과 같은 政書類 서적도 수회 인용되었다.

일곱째, 清代의 문헌은 21종이 67회 인용되었다. 중국본의 引用回數 4,246회 중에서 1.58%를 차지하여 인용된 서적의 종수에 비해 인용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주목된다. 清代 저작들의 성격을 살펴보면 經部 문헌이 5종이 23회 인용되었으며, 史部 문헌 5종이 18회, 子部 문헌 9종이 24회, 集部 문헌 2종이 2회 인용되어, 經部와 子部の 문헌이 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弘齋全書」에 인용된 375종의 문헌 중 저자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저작 2종을 제외한 373종은, 한국본 76종, 중국본 297종으로 나눌 수 있다. 왕조별로는 중국 宋代의 저작이 85종으로 나타나 가장 다양한 문헌이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조선본이 74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용빈도는 있어서는 저자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저작의 引用回數 2회를 제외한 4,500회 중에서, 先秦 문헌이 총 1,965회 인용되어 정조에 의해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宋代의 문헌이 1,251회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2.2.2 주제별 분석

여기에서는 「弘齋全書」에서 추출한 인용문헌 375종(4,502회)을 대상으로 四部分類法에 의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 서적의 引用回數를 經部, 史部, 子部,

集部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四部分類法에 따른 인용문헌 분류

部	類	種數	比率(%)	引用回數	比率(%)
經部	易類	10	2.66	290	6.44
	書類	11	2.93	516	11.46
	詩類	7	1.87	581	12.91
	禮類	12	3.20	366	8.13
	春秋類	10	2.66	205	4.55
	孝經類	2	0.53	8	0.18
	五經總義類	1	0.27	2	0.04
	四書類	17	4.53	829	18.42
	樂類	4	1.07	25	0.56
	小學類	11	2.93	58	1.29
소계		85	22.65	2,880	63.98
史部	正史類	24	6.40	657	14.60
	編年類	14	3.73	121	2.69
	別史類	3	0.80	9	0.20
	雜史類	14	3.73	40	0.89
	詔令奏議類	1	0.27	3	0.07
	傳記類	13	3.47	29	0.64
	史鈔類	1	0.27	6	0.13
	載記類	3	0.80	7	0.16
	地理類	16	4.27	35	0.78
	職官類	1	0.27	1	0.02
	政書類	22	5.87	97	2.13
	目錄類	3	0.80	3	0.07
	史評類	1	0.27	1	0.02
소계		116	30.95	1,009	22.40
子部	儒家類	36	9.60	282	6.27
	兵家類	11	2.93	29	0.64
	法家類	2	0.54	14	0.31
	農家類	3	0.80	4	0.09
	醫家類	4	1.07	7	0.16

「弘齋全書」의 인용문헌분석을 통한 정조의 독서 행태 연구

部	類	種數	比率(%)	引用回數	比率(%)
子部	天文算法類	7	1.87	9	0.20
	術數類	10	2.66	28	0.62
	藝術類	6	1.60	19	0.42
	譜錄類	1	0.27	2	0.04
	雜家類	17	4.53	31	0.69
	類書類	8	2.13	13	0.29
	小說家類	15	4.00	41	0.91
	釋家類	8	2.13	9	0.20
	道家類	7	1.87	53	1.18
소계		135	36.00	541	12.02
集部	楚辭類	2	0.54	11	0.24
	別集類	24	6.40	33	0.73
	總集類	10	2.66	25	0.56
	詩文評類	3	0.80	3	0.07
소계		39	10.40	72	1.60
총계		375	100	4,502	100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弘齋全書」의 인용문헌을 종수별로 보면, 子部의 서적이 135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史部, 經部, 集部の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용 빈도로 보면, 經部 서적이 2,880회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으며, 史部, 子部, 集部の 순으로 드러났다. 각 部별로 인용문헌의 목록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2.1 經部

「弘齋全書」의 인용문헌 375종 가운데 經部에 속하는 서적들은 85종(22.65%)이며, 引用回數로는 총 4,502회 중에서 2,880회(63.98%)를 차지하였다. 經部 문헌 중 가장 많이 인용된 서적은 四書類이고, 그 다음으로 禮類, 小學類, 書類의 순이다. 引用回數 역시 四書類의 서적들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詩類, 書類, 禮類의 순으로 나타났다. 經部の 각 類目別 인용문헌 목록은 <표 5>와 같다.

<표 5> 經部 인용문헌 목록

部	類	書名(引用回數)	種數(%)/ 引用回數(%)
經部	易類	『周易』(176), 『周易本義』(56), 『周易程傳』(45), 『周易傳義大全』(4), 『易學啓蒙』(3), 『周易說統』(2), 『郭氏傳家易說』(1), 『易說問答』(1), 『易通卦驗』(1), 『周易乾鑿度』(1)	10종(11.76)/ 290회(10.07)
	書類	『書經』(307), 『書集傳』(195), 『尚書大傳』(3), 『尚書註疏』(3), 『尚書正義』(2), 『尚書廣聽錄』(1), 『書經考異』(1), 『書經傳說彙纂』(1), 『書纂言』(1), 『定正洪範』(1), 『河洛本始』(1)	11종(12.94)/ 516회(17.92)
	詩類	『詩經』(367), 『詩經集傳』(192), 『韓詩外傳』(17), 『詩序辨說』(2), 『詩經世本古義』(1), 『詩經註疏』(1), 『詩輯』(1)	7종(8.24)/ 581회(20.17)
	禮類	『禮記』(181), 『周禮』(128), 『儀禮』(23), 『周禮註疏』(9), 『大戴禮記』(7), 『儀禮注疏』(6), 『禮記註疏』(5), 『家禮』(2), 『禮記集說』(2), 『家禮儀節』(1), 『三禮圖』(1), 『周禮復古編』(1)	12종(14.12)/ 366회(12.71)
	春秋類	『春秋左氏傳』(132), 『春秋』(31), 『春秋公羊傳』(19), 『呂氏春秋』(12), 『春秋穀梁傳』(6), 『顏氏春秋』(1), 『春秋左傳注疏』(1), 『春秋左傳集解』(1), 『春秋後語』(1), 『春秋後傳』(1)	10종(11.76)/ 205회(7.12)
	孝經類	『孝經』(7), 『孝經刊誤』(1)	2종(2.35)/ 8회(0.28)
	五經總義類	『經典釋文』(2)	1종(1.18)/ 2회(0.07)
	四書類	『論語』(166), 『孟子』(165), 『中庸章句』(117), 『論語集註』(90), 『中庸』(87), 『大學』(79), 『孟子集註』(40), 『大學章句』(29), 『大學或問』(17), 『中庸或問』(16), 『四書蒙引』(9), 『論語或問』(6), 『四書講義困勉錄』(3), 『論語正義』(2), 『論語集解』(1), 『孟子注』(1), 『中庸九經衍義』(1)	17종(20.00)/ 829회(28.78)
	樂類	『律呂正義』(17), 『律呂精義』(4), 『律呂新書』(3), 『律學新說』(1)	4종(4.71)/ 25회(0.87)
小學類	『爾雅』(29), 『說文解字』(12), 『四聲類譜』(4), 『廣雅』(3), 『廣韻』(2), 『釋名』(2), 『字說』(2), 『埤雅』(1), 『玉篇』(1), 『爾雅翼』(1), 『洪武正韻』(1)	11종(12.94)/ 58회(2.01)	
총 85종(100%)/2,880회(100%)			

위의 표를 바탕으로 經部 인용문헌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經部 중 가장 종수와 引用回數가 많은 것은 四書類의 서적이다. 四書類는 17종의 문헌이 829회 인용되었는데, 四書類의 인용빈도는 『弘齋全書』 전체 引用回數 4,502회의 18.41%, 經部 저작의 引用回數 2,880회의 28.78%에 달한다.

이는 四部를 통틀어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四書類에서 100회 이상 인용된 문헌은 「論語」, 「孟子」, 「中庸章句」 등 3종으로, 이들 문헌은 총 448회 인용되어 四書類 전체의 引用回數 829회 중에서 54.04%를 점유하였다. 저자별로는 주자의 문헌이 7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주자를 존숭하고 그의 경전 해석을 깊이 탐구한 정조가 실제로도 주자의 주석서를 자주 인용하여 경전 연구에 몰두했음을 나타낸다. 四書類에 속한 조선본은 「中庸九經衍義」 1종이며, 이 문헌은 經部 통틀어 유일한 조선본이다.

둘째, 정조는 四書類와 더불어 六經과 그 주석서 역시 폭넓게 인용하였다. 인용 문헌 목록에서 六經과 그의 주석서에 해당하는 문헌들은 易類, 書類, 詩類, 禮類, 春秋類, 樂類에 속하며, 이들 54종은 총 1,983회 인용되었다. 이는 「弘齋全書」의 전체 引用回數 4,502회 중 44.05%에 달한다. 六經 관련 저작이 전체 引用回數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정조가 단지 六經을 강조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폭넓게 활용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단일 항목으로 보았을 때 經部에서 四書類 다음으로 종수가 많은 것은 禮類 저작이다. 禮類 저작의 引用回數는 366회로 經部の 引用回數 2,881회 중에서 12.70%를 차지하며, 禮類 저작 12종 중에서 100회 이상 인용된 문헌은 「禮記」와 「儀禮」 2종이었다.

넷째, 문헌의 인용빈도를 통해 활용도를 살펴보면 四書類에 이어 詩類 문헌의 引用回數가 높았다. 詩類에서 100회 이상 인용된 핵심인용문헌은 「詩經」, 「詩經集傳」 2종으로, 이들은 각 367회, 192회 인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367회 인용된 「詩經」은 「弘齋全書」 전체 인용문헌 381종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된 문헌으로, 「詩經」은 주로 고사의 저본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2.2.2.2 史部

「弘齋全書」의 인용문헌 375종 가운데 史部에 속하는 문헌은 116종(30.95%)이며, 引用回數로는 총 4,502회 중에서 1,009회(22.40%)를 차지하였다. 史部에서는

正史類 문헌이 24종(20.6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政書類, 地理類, 編年類, 雜史類 순으로 나타났다. 引用回數로는 역시 正史類 서적이 657회 인용되어 65.11%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編年類, 政書類 순이었다. 史部の 각 類別 인용문헌의 목록은 <표 6>으로 정리된다.

<표 6> 史部 인용문헌 목록

部	類	書名(引用回數)	種數(%)/ 引用回數(%)
史部	正史類	『史記』(196), 『漢書』(134), 『宋史』(76), 『後漢書』(69), 『新唐書』(51), 『晉書』(40), 『舊唐書』(28), 『三國志』(15), 『明史』(14), 『隋書』(5), 『五代史』(4), 『北史』(3), 『史記索隱』(3), 『宋書』(3), 『魏書』(3), 『高麗史』(2), 『遼史』(2), 『三國史記』(2), 『新五代史』(2), 『南齊書』(1), 『史記集解』(1), 『梁書』(1), 『元史』(1), 『魏志』(1)	24종(20.69)/ 657회(65.11)
	編年類	『朝鮮王朝實錄』(50), 『資治通鑑綱目』(32), 『資治通鑑』(14), 『國朝寶鑑』(8), 『少微通鑑節要』(5), 『竹書紀年』(4), 『建炎以來系年要錄』(1), 『唐史』(1), 『東史綱目』(1), 『三朝寶訓』(1), 『續資治通鑑長編』(1), 『資治通鑑外記』(1), 『資治通鑑前編』(1), 『通鑑綱目集覽』(1)	14종(12.07)/ 121회(11.99)
	別史類	『逸周書』(5), 『東觀漢記』(2), 『帝王世紀』(2)	3종(2.59)/ 9회(0.89)
	雜史類	『國語』(18), 『戰國策』(6), 『明義錄』(4), 『貞觀政要』(2), 『公私聞見錄』(1), 『大東野乘』(1), 『戊寅日記』(1), 『丙子錄』(1), 『涑水紀聞』(1), 『松窩雜說』(1), 『燕北雜記』(1), 『朝鮮記事』(1), 『關義昭鑑』(1), 『筆苑雜記』(1)	14종(12.07)/ 40회(3.97)
	詔令 奏議類	『陸宣公奏議』(3)	1종(0.86)/ 3회(0.30)
	傳記類	『烈女傳』(9), 『宋名臣言行錄』(4), 『列仙傳』(4), 『國朝人物考』(2), 『堦源系譜紀略』(2), 『高士傳』(1), 『烈士傳』(1), 『明陪臣考』(1), 『世本』(1), 『至德誌』(1), 『河氏家乘』(1), 『海東名臣錄』(1), 『海東名臣傳』(1)	13종(11.21)/ 29회(2.87)
	史鈔類	『十八史略』(6)	1종(0.86)/ 6회(0.60)
	載記類	『吳越春秋』(4), 『越絕書』(2), 『吳越備史』(1)	3종(2.59)/ 7회(0.69)
地理類	『魯陵志』(9), 『新增東國輿地勝覽』(7), 『水經』(5), 『水經註』(2), 『括地志』(1), 『大明一統志』(1), 『讀史方輿紀要』(1), 『洛陽伽藍記』(1), 『三輔黃圖』(1), 『三齊略記』(1), 『西域圖記』(1), 『輿地圖書』(1), 『楚書』(1), 『耽羅誌』(1), 『太平寰宇記』(1), 『河源志』(1)	16종(13.79)/ 35회(3.47)	

「弘齋全書」의 인용문헌분석을 통한 정조의 독서 행태 연구

部	類	書名(引用回數)	種數(%)/ 引用回數(%)
史部	職官類	「唐六典」(1)	1종(0.86)/ 1회(0.10)
	政書類	「國朝五禮儀」(41), 「經國大典」(8), 「大典通編」(7), 「大明集禮」(6), 「文獻通考」(6), 「通典」(5), 「續大典」(4), 「國朝喪禮補編」(2), 「大明會典」(2), 「無冤錄」(2), 「磻溪陪錄」(2), 「顯隆園志」(2), 「國朝榜目」(1), 「國朝五禮儀序例」(1), 「唐會要」(1), 「大唐開元禮」(1), 「大典後續錄」(1), 「續通典」(1), 「字恤典則」(1), 「玄覽」(1), 「春官俎豆簿」(1), 「春官通考」(1)	22종(18.96)/ 97회(9.61)
	目錄類	「金石錄」(1), 「四庫全書總目提要」(1), 「浙江採集遺書總錄」(1)	3종(2.59)/ 3회(0.30)
	史評類	「三國雜事」(1)	1종(0.86)/ 1회(0.10)
총 116종(100%)/1,009회(100%)			

위의 표를 바탕으로 史部 인용문헌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史部에서는 正史類 서적의 종수와 인용빈도가 가장 높아, 正史類 저작이 집중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正史類에서 100회 이상 인용된 서적은 「史記」와 「漢書」 2종으로, 이들은 총 330회 인용되어 正史類 引用回數 657회 중 50.23%를 차지하였다. 正史類 저작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魏晉南北朝代 저작 6종, 唐, 宋代 저작이 각 5종 순이었으며, 한국본으로는 조선과 고려의 저작이 각 1종씩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 번째로 종수가 많은 것은 政書類 저작으로 나타났다. 史部 政書類 서적 중 가장 많이 인용된 문헌은 「國朝五禮儀」로 41회에 걸쳐 인용되었다. 시기 별로는 조선본이 「國朝五禮儀」, 「經國大典」 등 12종 인용되어 가장 많았으며, 唐代 저작이 3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셋째, 인용빈도로 보았을 때 正史類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된 것은 編年類 저작이다. 編年類 서적에는 「資治通鑑」과 「資治通鑑綱目」을 비롯한 중국의 편년체 사서와 「朝鮮王朝實錄」과 「國朝寶鑑」을 비롯한 조선의 편년체 사서가 집

중적으로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2.2.3 子部

『弘齋全書』의 인용문헌 375종 가운데 子部에 속하는 문헌은 135종(36.00%)으로 총 541회 인용되었다. 이는 四部 중에서 가장 많은 종수가 인용된 것이다. 子部에서는 儒家類 문헌이 36종(26.6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雜家類, 小說家類, 兵家類 순으로 나타났다. 引用回數 역시 儒家類 서적이 282회(52.1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道家類, 小說家類, 雜家類 순이었다. 子部の 각 類別 인용문헌의 목록은 <표 7>과 같다.

<표 7> 子部 인용문헌 목록

部	類	書名(引用回數)	種數(%)/ 引用回數(%)
子部	儒家類	『朱子語類』(75), 『朱子大全』(33), 『近思錄』(17), 『心經』(16), 『孔子家語』(13), 『新書』(13), 『小學』(12), 『宋元學案』(12), 『朱子書節要』(12), 『二程全書』(10), 『通書』(10), 『說苑』(9), 『孔叢子』(7), 『朱子語錄』(7), 『荀子』(5), 『揚子法言』(5), 『大學衍義補』(3), 『西銘解義』(2), 『性理大全』(2), 『聖學輯要』(2), 『新序』(2), 『講錄』(1), 『擊蒙要訣』(1), 『經書辨疑』(1), 『讀書錄』(1), 『四書思辨錄』(1), 『新語』(1), 『心經附註』(1), 『鹽鐵論』(1), 『正學雜著』(1), 『朱子書節要講錄刊補』(1), 『朱子全書』(1), 『中論』(1), 『中說』(1), 『知言』(1), 『陔餘叢考』(1)	36종(26.67)/ 282회(52.13)
	兵家類	『紀效新書』(7), 『武藝新譜』(6), 『武藝諸譜』(4), 『黃石公三略』(3), 『武備志』(2), 『兵學指南』(2), 『續兵將圖說』(1), 『握奇經』(1), 『六韜』(1), 『李衛公問對』(1), 『黃石公素書』(1)	11종(8.15)/ 29회(5.36)
	法家類	『韓非子』(8), 『管子』(6)	2종(1.48)/ 14회(2.59)
	農家類	『荊楚歲時記』(2), 『農家集成』(1), 『穡經』(1)	3종(2.22)/ 4회(0.74)
	醫家類	『本草綱目』(3), 『東醫寶鑑』(2), 『神農本草經』(1), 『黃帝內經』(1)	4종(2.96)/ 7회(1.29)
	天文 算法類	『漏籌通義』(2), 『儀象志』(2), 『物理論』(1), 『授時曆』(1), 『時憲曆』(1), 『周髀算經』(1), 『天文略』(1)	7종(5.19)/ 9회(1.66)

「弘齋全書」의 인용문헌분석을 통한 정조의 독서 행태 연구

部	類	書名(引用回數)	種數(%)/ 引用回數(%)
子部	術數類	「皇極經世書」(6), 「太玄經」(4), 「洪範皇極內篇」(4), 「道統秘記」(3), 「易林」(3), 「天機大要」(3), 「葬經翼」(2), 「京氏易傳」(1), 「地理人子須知」(1), 「火珠林」(1)	10종(7.41)/ 28회(5.18)
	藝術類	「詩樂和聲」(6), 「樂學軌範」(5), 「樂通」(4), 「樂書」(2), 「全唐詩話續編」(1), 「丸經」(1)	6종(4.44)/ 19회(3.51)
	譜錄類	「禽經」(2)	1종(0.74)/ 2회(0.37)
	雜家類	「淮南子」(6), 「白虎通」(5), 「示兒編」(3), 「東坡志林」(2), 「墨子」(2), 「日知錄」(2), 「紺珠集」(1), 「古夫於亭雜錄」(1), 「歸有園塵談」(1), 「論衡」(1), 「石林燕語」(1), 「宋景文筆記」(1), 「雲麓漫抄」(1), 「紫微師友雜誌」(1), 「藏一話腴」(1), 「風俗通」(1), 「化書」(1)	17종(12.59)/ 31회(5.73)
	類書類	「淵鑑類函」(3), 「永樂大典」(3), 「冊府元龜」(2), 「群書考索」(1), 「圖書編」(1), 「山堂肆考」(1), 「書言故事」(1), 「佩文韻府」(1)	8종(5.92)/ 13회(2.40)
	小說家類	「世說新語」(15), 「山海經」(4), 「博物志」(3), 「西京雜記」(3), 「拾遺記」(3), 「開元天寶遺事」(2), 「幽怪錄」(2), 「續齊諧記」(2), 「談苑」(1), 「穆天子傳」(1), 「宣室志」(1), 「搜神記」(1), 「異聞集」(1), 「楞湖隨錄」(1), 「漢武內傳」(1)	15종(11.11)/ 41회(7.58)
	釋家類	「妙法蓮華經」(2), 「起世因本經」(1), 「金剛經」(1), 「大薩遮尼乾子所說經」(1), 「佛說大報父母恩重經」(1), 「長阿含經」(1), 「陀羅尼雜集」(1), 「華嚴經」(1)	8종(5.93)/ 9회(1.66)
	道家類	「莊子」(39), 「道德經」(5), 「列子」(5), 「神仙列傳」(1), 「雲笈七籤」(1), 「抱朴子」(1), 「黃庭經」(1)	7종(5.19)/ 53회(9.80)
총 135종(100%)/541회(100%)			

위의 표를 바탕으로 子部 인용문헌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子部에서는 儒家類의 서적이 종수(36종)와 인용빈도(292회) 면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儒家類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문헌은 「朱子語類」로 75회 인용되었다. 시기별로는 宋代의 저작이 10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漢代 8종, 朝鮮 7종, 明代 5종 순이었다. 宋代의 문헌은 주자의 저작, 문집 및 어록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인용되었다. 引用回數 상위 3개 문헌도 「朱子語類」, 「朱子大全」, 「近思錄」으로 모두 주자와 관련된 저작이었다. 따라서 정조가 宋代와 漢代 유학자들의 저작을 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子部의 인용문헌 목록 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釋家類 및 道家類, 法家類와 같은 제자백가의 문헌이 수회에 걸쳐 인용되었다는 것이다. 정조는 法家類 서적 2종을 14회, 釋家類 서적 8종을 9회, 道家類 서적 7종을 53회 인용하였다. 특히 道家類 저작의 引用回數는 儒家類에 이어 子部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곧 정조가 유교의 서적이 아니더라도 본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제가의 사상은 유연하게 수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셋째, 인용빈도 순으로 道家類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인용된 것은 子部 小說家類 서적이다. 小說家類 저작은 주로 각종 설화집 및 신화집, 인물들의 전기들이 詩文 작문의 전고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용빈도로 보았을 때 小說家類에 이어 兵家類의 서적이 네 번째로 많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醫家類, 農家類 등 실용서적도 인용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정조가 백성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農書와 醫書도 간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비록 절대적인 종수는 적지만 정조가 醫書, 農書, 兵書를 비롯한 실용서의 활용과 보급에도 관심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2.2.2.4 集部

『弘齋全書』의 인용문헌 375종 가운데 集部에 해당되는 문헌은 39종(10.40%)이며, 인용빈도는 72회(1.60%)를 차지하였다. 集部에서는 別集類 문헌이 24종 인용되어 61.54%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總集類, 詩文評類, 楚辭類 순으로 나타났다. 引用回數로는 別集類 서적이 33회 인용되어 集部 전체 引用回數 중에서 45.83%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總集類, 楚辭類, 詩文評類 순이었다. 別集類와 總集類의 引用回數를 합하면 集部 引用回數의 80.55%로 集部에서는 중 두 부류의 서적이 중점적으로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史部의 각 類別 인용문헌의 목록은 <표 8>과 같다.

<표 8> 集部 인용문헌 목록

部	類	書名(引用回數)	種數(%)/ 引用回數(%)
集部	楚辭類	『楚辭』(10), 『楚辭集注』(1)	2종(5.13)/ 11회(15.28)
	別集類	『東坡全集』(3), 『杜少陵詩集』(3), 『西河集』(3), 『宋子大全』(3), 『訥齋集』(2), 『感遇集』(1), 『擊壤集』(1), 『果菴集』(1), 『龜山集』(1), 『魯西遺稿』(1), 『陶淵明集』(1), 『栗谷全書』(1), 『夢窩星州遺教』(1), 『西臺集』(1), 『孫可之集』(1), 『息庵遺稿』(1), 『楊龜山集』(1), 『於于集』(1), 『慵齋叢話』(1), 『月汀漫錄』(1), 『拙修齋集』(1), 『滄溪集』(1), 『耻齋日記』(1), 『河西全集』(1)	24종(61.54)/ 33회(45.83)
	總集類	『唐宋八大家文抄』(8), 『古文眞寶』(4), 『文選』(4), 『詩記』(3), 『光國志慶錄』(1), 『唐宋八子百選』(1), 『明詩綜』(1), 『文體明辨』(1), 『中州集』(1), 『稗海』(1)	10종(25.64)/ 25회(34.72)
	詩文評類	『文心雕龍輯注』(1), 『文章緣起』(1), 『滄浪詩話』(1)	3종(7.69)/ 3회(4.17)
총 39종(100%)/72회(100%)			

위의 표를 바탕으로 集部 인용문헌 목록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集部 문헌은 別集類를 중심으로 인용되었다. 이는 別集類에 속하는 시문 선집과 개인문집들이 다수 인용된 것을 뜻한다. 그러나 別集類 저작은 대체적으로 引用回數가 3회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別集類 저작이 핵심인용문헌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단발적인 인용에 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기별로는 조선본이 15종으로 別集類의 62.50%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宋代 문인의 문집이 5종 인용되었다. 別集類의 인용에 있어 조선 문인들의 시문집이 주요하게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總集類 또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정조조는 청나라 고증학의 영향으로 북학운동이 전개되고 있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다양한 인물들의 글 묶음인 總集類의 集部가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시기이다.¹⁰⁾ 따라서 둘 이상의 문인의 저작을 담은 總集類 서적 또한 주요 독서대상이었으며, 정조는 여러 개의 總集類

10) 정옥자, “奎章閣의 지식기반사회적 의미와 동아시아문화,” 『규장각』 29(2006), 112.

저작을 근간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문인이나 唐宋문인들의 시문집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3. 正祖의 독서 행태

이상에서 살펴본 『弘齋全書』의 인용문헌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토대로 정조의 독서 행태를 각 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經部

정조는 四書와 六經을 기본으로 經部の 경전 및 주석서 해석과 탐독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들의 독서 범주를 살펴보면, 조선 중기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栗谷 李珥와 退溪 李滉을 비롯하여 조선 후기 실학자들도 經部 문헌을 꾸준히 탐독하였음을 알 수 있다. 退溪는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은 四書와 朱書 같은 聖經, 賢傳에 뜻을 두어야 된다고 하며, 『小學』, 『大學』 등의 유교 기본경전을 권하고 心經과 주자의 書簡文을 중요시하였다. 栗谷 역시 四書 五經과 『小學』을 돌려가면서 널리 읽음으로써 사리를 깨달으면 의리가 나날이 밝아질 것이라 한 바가 있다.¹¹⁾ 茶山이 修己를 위하여 읽으라고 권한 책들 또한 四書와 六經이었다.¹²⁾ 이처럼 시대를 막론하고 조선의 지식인들은 경전을 어떤 대도로 해석할 것인가에 차이를 두었을 뿐, 經部の 서적을 가장 먼저 학습해야 할 근본이자 학문의 근간으로 여겼으며, 국가체제의 정당성을 생산해내야 하는 정조 역시 경전을 학문의 근본으로 삼아 독서하였다.

정조는 經部에서 四書와 六經 외에 小學類의 서적도 다수 독서하였다. 『爾雅』

11) 김영, “조선시대 독서론 연구 - 퇴계와 율곡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12집 (1989), 213-221.

12) 김영, “실학파의 독서관,” 『독서연구』 제10호(2003), 12.

와 같은 訓詁書와, 「說文解字」 등의 字書, 「四聲類譜」와 같은 韻書들이 그것으로, 정조가 小學類 서적들을 經部의 다른 類 못지않게 읽은 것은 당시 淸에서 유행하는 고증학의 학풍이 일정정도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정조가 기존의 주석서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참고자료와 학설들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경전 해석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3.2 史部

史部의 서적은 정조가 유가의 경전 다음으로 많이 탐독한 서적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정조가 생각한 正學이 六經과 史書, 그리고 주자의 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經典에 이어 史書를 읽었던 유학자들의 독서 방법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역사서를 중시했던 당시 지식인의 지적 풍토를 반영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 당시 정조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왕권 강화와 함께 자신의 정통성과 위엄을 세우는 것이었다.¹³⁾ 따라서 정조는 통치 자료의 근거이자 왕권을 강화하고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역사를 중요시하고 역사서 편찬과 탐독에 몰입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조는 조선의 史部 문헌 중 통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國朝五禮儀」와 같은 국가 운영의 규범과 내용에 대한 여러 저작인 史部 政書類 저작, 조선 왕실의 역사서인 「朝鮮王朝實錄」, 「國朝寶鑑」 같은 史部 編年類 저작들을 주로 탐독하였다. 과거 선왕들의 사적과 선대의 법제는 통치 질서를 안정시키고 정통성을 부여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정조가 과거에 편찬된 역사서와 「國朝五禮儀」, 「國朝喪禮補編」과 같은 政事 관계서를 읽으면서, 현실적인 정치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당성을 입증했으리라 추측된다. 政書類 서적이 중요시 된 것은 조선의 다른 지식인들의 독서 범주와는 차별되는 것으로, 통치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국왕으로서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

13) 정옥자,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서울: 돌베개, 1999), 23-27.

이라 할 수 있다.

史部 저작 중에는 宋代의 史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정조는 우리나라의 법도는 오로지 宋을 모방하여 법이나 정사의 계책도 비슷한 것이 많기 때문에 『宋史』를 매년 읽는다고 한 바가 있다.¹⁴⁾ 조선과 宋의 법도와 풍속이 유사하므로, 宋의 역사적 교훈 역시 조선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정조는 史部 저작 중 地理類 문헌도 다수 독서하였다. 地理類에는 조선본이 4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정조가 조선의 역사뿐만 아니라 조선의 지리와 산하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3.3 子部

子部の 문헌은 儒家類의 서적을 중점적으로 읽었으나, 그밖에 釋家類, 道家類, 法家類, 兵家類, 醫家類, 農家類 등에 이르는 다양한 서적을 폭넓게 섭렵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釋家類, 道家類의 서적들을 읽었다는 점이다. 정조는 유학을 사상적 근간으로 삼으면서도 당시 이단에 해당하는 서적을 읽는 등 나름대로 자유로운 독서 성향을 보인 것이다. 또한 정조는 子部에서 兵家類, 農家類, 醫家類, 天文算法類와 같은 실용서와 기술서적도 폭넓게 독서하였다.

정조가 실용서들을 다수 독서하였던 것은 그가 가진 실용주의적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조에게 있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것과 치용에 도움이 되는 것, 曆은 물론 六藝도 포함되며, 나아가 이단이라고 인식되는 학문에 있어서도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었다.¹⁵⁾ 정조는 학문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데 실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정조가 각종 실용서들을 독서하였다고 볼 수 있다.

14) 박소동 역, 『(국역)弘齋全書 16: 卷161. 『日得錄1, 文學1』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 19. “我東立國規模。專倣宋朝。而治法政謨。亦多髣髴。故予於宋史。每年輒一遍看詳。”

15) 김인규, “홍제 정조의 학문관,” 『온지논총』 23집(2009), 313.

정조는 특히 子部의 문헌들 중 明, 清代의 실용서들에 대하여 유연한 수용 태도를 보였다. 「天文略」, 「儀象志」와 같은 한역 천문서 및 「紀效新書」, 「武備志」와 같은 병서, 「本草綱目」을 비롯한 의서들을 독서한 것이 그 방증으로, 이는 정조가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서를 다양하게 수용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조는 이 시기에 수입된 한역서학서도 적극적으로 독서하는 행태를 보인다. 정조의 인용문헌에 나타난 한역서학서는 「天文略」, 「律呂正義」, 「儀象志」 총 3종으로 천문관계서적이 2종, 음악이론서가 1종이다. 정조가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明, 清代에 발간된 서학서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4 集部

정조는 集部의 서적 가운데 別集類, 總集類의 시문선집과 개인문집 위주로 독서하였다. 정조가 주로 독서한 시문선집의 대상은 중국, 그 중에서도 唐宋 문인들이 쓴 古文이 대부분이며, 明, 清代의 개인 문집을 독서한 사례가 없다. 唐宋 문인들의 문장을 모은 시문선집과 일부 明代의 시선집만이 독서 대상이 되었다. 명말청초의 문집에 대하여 “자랑으로 삼는 것은 蟲刻이고 비교하는 것은 鷄距이니, 裨販에 표절하는 풍조”¹⁶⁾라 비판한 정조의 사상이 반영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정조는 문인들의 문집과 총집을 다양하게 독서하였는데, 조선 문인들의 개인 문집들이 주요 독서 대상이었으며, 宋代 문인의 개인 문집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集部 저작 중에 포함된 조선시대 문집들을 살펴보면, 정조가 동방의 주자라고 일컬은 송시열의 문집인 「宋子大全」과 조선 초기에 규장각 설치를 건의했던 양성지의 문집인 「訥齋集」과 같이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이나, 자신과 정책적으로 뜻이 맞는 인물의 문집을 주로 독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정조는 자신이

16) 조창래 역, 「(국역)弘齋全書 6: 卷50. 策問3」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8), 210-211. “所矜者蟲刻。所較者雞距。而裨販剽賊之風。”

편찬하거나 편찬을 명한 서적도 즐겨 독서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정조가 자신의 학문 수준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며, 君師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弘齋全書』의 인용문헌을 분석하고 정조의 독서 행태를 규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인 『弘齋全書』의 인용문헌을 추출한 후, 인용빈도를 조사한 결과, 『弘齋全書』에는 375종의 문헌이 4,502회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375종의 인용문헌 중 저자 미상의 저작 2종을 제외한 373종의 문헌을 대상으로 국가별, 왕조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본은 76종, 중국본은 297종으로 나타났다. 한국본은 한국인 저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라와 고려 저작이 각 1종, 조선 저작이 74종으로 나타났다. 중국본은 중국인 저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先秦 저작 26종, 秦代 저작 3종, 漢代 저작 38종, 魏晉南北朝代 저작 46종, 隋代 저작 3종, 唐代 저작 28종, 宋代 저작 85종, 金代 저작 1종, 元代 저작 11종, 明代 저작 35종, 清代 저작이 21종으로 나타났다. 단일 왕조의 저작으로는 宋代의 저작이 가장 많았으며, 조선 저작이 두 번째로 나타났다.

셋째, 인용문헌 375종을 대상으로 四部分類法에 의거하여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經部 저작이 85종, 史部 저작이 116종, 子部 저작이 135종, 集部 저작이 39종으로 子部 저작이 가장 많았으며, 引用回數로는 經部 저작이 총 2,880회, 史部 저작이 총 1,009회, 子部 저작이 총 541회, 集部 저작이 총 72회 인용되어 經部 저작들이 중점적으로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용문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조의 독서 행태를 알아보았다. 정조는 經部の 경전 및 주석서 해석과 탐독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史部 문헌으로는 史書와 政書類 서적이 중점적인 독서 대상이었다. 특히 정조는 『三國史記』,

「朝鮮王朝實錄」과 같은 조선의 역사서도 수 중 독서하며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심을 보인 것이 특징적이다. 子部 문헌으로는 儒家類의 서적을 중심으로, 釋家類, 道家類, 法家類 등 제자백가의 사상까지 독서하는 폭넓은 독서 범주를 보였으며, 兵家類, 醫家類, 農家類와 같은 실용서적도 중요한 독서 대상으로 삼았다. 정조의 실용서에 대한 관심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실용주의적인 성향을 보여주었다. 集部 문헌은 시문선집과 개인문집 위주로 독서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정조의 독서 행태는 깊이와 그의 폭 면에서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유교의 경전을 비롯한 각종 성리학 서적을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도 그 밖에 經, 史, 子, 集의 모든 주제 분야를 망라한 폭넓은 독서를 실천하였다. 정조의 이러한 독서 행태는 정통 성리학을 견지하면서 보다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성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참고문헌>

- 김문식. “상서강의를 중심으로 본 정조의 경학사상.” 『한국사연구』 75집(1991). 113-155.
- 김문식. “正祖 御製集 「弘齋全書」의 書誌的 特徵.” 『장서각』 3집(2000). 7-33.
- 김문식. “정조의 교육정책.” 『정조학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9. 19-34.
- 김 영. “조선시대 독서론 연구 - 퇴계와 율곡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12집(1989). 203-225.
- 김 영. 『조선후기 한문학의 사회적 의미』. 서울: 집문당, 1993.
- 김 영. “실학파의 독서관.” 『독서연구』 10집(2003). 1-18.
- 김인규. “홍재 정조의 학문관.” 『온지논총』 23집(2009). 293-320.
- 백민정. “正祖의 학문관과 공부 방법론.” 『오늘의 동양사상』 34집(2010). 467-524.
-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 해설집 1-4』.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78-2003.
- 신양선. “朝鮮後期 正祖의 讀書觀.” 『역사와실학』 3집(1992). 119-184.
- 안병걸. “正祖 御製條問의 經學觀: 『經史講義』, 大學條問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39집(2001). 395-424.
- 정옥자. “정조(正祖)의 학예사상 - 홍재전서 일득록 문학조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4집 2호(1978). 2002-2037.
- 정옥자.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서울: 돌베개, 1999.
- 정옥자. 『정조의 문예사상과 규장각』. 서울: 효형출판, 2001.
- 정옥자. “奎章閣의 지식기반사회적 의의와 동아시아문화.” 『규장각』 29집(2006). 93-120.
- 正祖 著, 임정기 外譯. 『(국역)弘齋全書』.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8-2003.
-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서 DB』.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DB』.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M>>.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인물사전』.
<<http://people.aks.ac.kr/>>.
-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atalog). 『WorldCat』.
<<http://www.worldcat.org/>>.